지도가 말하는 국경선따라 떠난 지정학 여행

지도 위의 붉은 선

페데리코 람피니 지음 김정하 옮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작금의 상황은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

유라시아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땅이 넓고 비옥하다. 그러나 동방으로 진출하는 유럽 열강과 흑해와 지중해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가 부딪치는 요충지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빈번한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조다. 1991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독립했지만 그동안 '친러시아'와 '친서방'의 권력이 교차하면서 동·서로 지역 분열이 심화됐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세계의 지도'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지도와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지중해 난민 문제, 이슬람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까지 가늠된다.

세계의 현주소와 미래의 향방을 지도로 조망할 수 있는 책 '지도 위의 붉은 선'이 발간됐다. 이탈리아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페데리코 람피니가 저자다. 오랜 특파원 생활로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지정학과 역사 분야 책을 다수 출판했다.

'지도가 말하는 사람, 국경, 역사 그 운명의 선을 따라 나서는 지정학 여행'이라는 부제가 이채롭다. 저자는 집필을 위해 해외에서 쓴 일기,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 기사, 조사, 국제 정상회담 등 많은 자료를 이번 책에 녹여냈다.

소련연방(위)과 현재 러시아의 지도는 변화된 세계의 역학관계를 보여준다.

저자는 미국이 누리는 권력과 위기를 지리학적으로 파헤친다. 동서에 걸쳐 두 대양을 접하고 있어 적들의 침략을 막아주는 천연의 방어선이다. 방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지닌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내륙의 에너지 자원에서 두 대양을 향한 진출로 전환한 것은 지리를 근거로 한 패권에서 기인한다.

'서양은 중국을 죽이고 있는가?' 편에서 저자는 신실크로드를 매개로 중국을 분석한다. 중국이 건설하는 도로, 고속도로, 철도, 항구가 중앙아시아 전체 결속을 강화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몰락하고 있는 국가들만이 안정된 국경을 원하고, 쇠퇴의 길에 접어든 문명만이 요새를 구축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며 "발전하는 국가들은 성벽이 아니라 도로를 건설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중국은 자신의 문명 발전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이밖에 저자는 '인도의 희망은 어떻게 되었나', '이민과 정체성, 지중해에 함몰된 이탈리아',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지리', '기후가 변하면 지도는 더 많이 변한다'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 등을 분석한다. 그러면서도 지정학적 붉은 선들을 바라보는 균형감각은 결코 잃지 않으려 한다. 세계를 시간과 공간 양쪽의 측면에서 폭넓게 바라보고 사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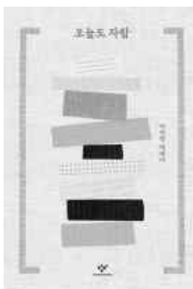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은 "페데리코 람피니는 지정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현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작가다. 이 책에서 그는 현상의 근원을 세심하게 분석해 인류 정신의 심연을 파헤친다"고 상찬했다. 〈갈라파고스·2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매일의 일상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축적'이 삶을 바꾼다

오늘도 자람

이자람 지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판소리로 듣는 건 어떤 기분일까. 수십일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노인'이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빠른 장단으로 몰아치며 부르는 대목에 이르면 관객들도 어느 새, 망망대해 바다 위 한 척 배 위에서 노인과 함께 싸우는 입장이 된다.

세계 명작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이자람의 작업은 획기적이다. 그는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사천가'를 프랑스 국립민중극장 등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으로 시작하는 노래 '예솔이'의 주인공 이자람은 전방위 예술인이다. 중요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그는 배우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국립창극단 객원 음악감독, 작창가, 연출가로 일한다. 또 '아마도이자람밴드'의 리드보컬로 작사·작곡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의 판소리 작창 솜씨나,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글 쓰는 솜씨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이자람의 에세이 '오늘도 자람'은 탁월한 이야기꾼인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일상의 글들을 모았다.

프롤로그에서 "나는, 한국에서 예술교육을 받으며 자라 운 좋게 공연예술계에서 작품을 창작하며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40대 여성 예술가"라고 말하는 그는 책에 담긴 40여편의 글을 통해 생활인으로 살아오며 알게 된 이치,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하고 부단히 노력해 온 과정 등을 들려준다.

매일의 일상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축적'을 믿는다는 그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인생을 바꾸는 건 삶의 이면에 쌓이는 보이지는 않는 '시간들'이라고 말한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그는 소리 공부를 위해 여러 선생을 만났다. 그의 '인생 세번째 마스터' 송순섭 명창과의 이야기는 인상적이다. 스승이 갑갑하게 막히는 일 앞에서 내 뱉던 말 "어찌 되얏든 다 되게 되어 있다"는 아마도이자람밴드의 곡 'Good Night'에 녹아 있다. "내가 제자인께 이렇게 생각하지말고 선생님을 능가할 수 있도록 욕심을 부리라고." 이야기해주던 스승의 말씀은 먼훗날 누군가의 선생이 되었을 때 자신이 받은 좋을 것들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쉽게 후져지더라. 대부분의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유지하고 팽창시키기 위해 인간적으로 사는 방법들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치환하고, 그 선택을 부끄러워해야 할 감각은 자신의 삶에서 그냥 삭제해 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에 그 때마다 만약 내 삶에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어떻게 운용해야 독이 아닌 것으로 흘러서 다른 곳으로 유용하게 이어질 것인가 고민하기도 한다. 〈창비·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개혁하는 사람, 조광조=조광조는 '개혁'이라는 확두가 필요한 시대의 격변기 때 마다 소환된다. 개혁이라는 낱말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조선 중종 때의 조광조의 삶과 사상을 다룬다. 이 책은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조광조의 삶과 사상에 접근하려 애썼다. 저자 조성일은 부족한 역사적 사료를 상상력으로 채워 넣는 팩션 형식을 빌려 조광조의 삶과 사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시간여행·1만5000원〉

▲최전선의 사람들=도쿄신문 기자인 가타야마 나쓰코가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참혹함과 작업자들의 지난한 사고 수습 작업을 알리기 위해 취재, 연재한 140여 회의 기획기사를 모아 출간한 도서. 뉴스로만 접한 '원전 사고'를 작업자 한명, 한명의 얼굴로 생생히 복원한다.

〈푸른숲·2만3000원〉

▲로마 황제처럼 생각하는 법=가장 강력했던 고대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가 누구보다 이성과 지성을 갈고 닦으며 위대한 철인 황제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저자 도널드 로버트슨은 그 비밀을 풀어갈 키워드 '스토아'를 통해 아우렐리우스의 유년기부터 시작되는 그의 인생이야기를 서술한다. 〈황금거북·1만7000원〉

▲절벽의 밤=나오키상과 일본추리작가협회상, 본격 미스터리 대상 등 일본 유수 문학상을 휩쓸며 호러 서스펜스 대가로 떠오른 미치오 슈스케가 '지금까지 읽어본 적 없는 소설'이라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출간 당시부터 독자들이 해설을 요청하거나 직접 해설을 게재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설. 사건의 진상을 추리하며 평화로운 거리에 감춰진 오싹한 진실을 만나볼 수 있다. 〈청미래·1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토기부터 백자까지 우리 그릇 이야기='꿈을 그린 추상화가: 김환기', '누가 제일 자르 그렸나요?' 등 어린이를 위한 미술 도서를 쓴 임창섭 작가가 '온라인 도자기 박물관'이라는 공간으로 어린이 독자들을 초대해, 선조들이 만들어 사용했던 우리 그릇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60개의 그릇들과 도자기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시공주니어·1만300원〉

▲토마토 5형제=바람숲그림책도서관의 '어린이 그림책 작가 교실 시리즈' 8번째 작품. 초등학교 4학년 김사랑 어린이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그림책. 토마토 5형제가 인간에게 먹히기 싫어 인간 몰래 무언가 일을 꾸미는 좌충우돌 이야기가 담겼다. 김사랑 어린이의 상상력이 듬뿍 담긴 그림책.

〈고래가숨쉬는도서관·1만2000원〉

▲하얀 밤의 고양이=좋아하는 그림책은 새집에 둘 자리가 없어 버리고 왔다. 마음 둘 곳 없던 주인공 '아연'은 그림책이 빼곡이 꽂힌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발을 들이면서 안식처를 찾는다. 몰래 드나들던 작은 도서관에서 어느 추운 밤 눈부시게 하얀 고양이를 만난 아연. 하얀 고양이와 만난 성장기를 따스한 글과 그림으로 풀어낸 아름다운 그림책.

〈노란상상·1만4500원〉